



헌법준중 정부혁신 TF, 국방부 TF 개편 및 총괄 TF 자문위원 추가 위촉

- 국방부 헌법준중 TF,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 신설
- 총괄 TF, 이친범 전 駐동티모르 대사 추가 위촉 예정

- 총리실(헌법준중 정부혁신 총괄 TF)은 ▲국방부 헌법준중 정부혁신 TF의 체계 개편 ▲총괄 TF 외부자문단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.
- 국방부 헌법준중 정부혁신 TF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하였다.
 -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 포함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징계·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,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,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,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자문단 강화 조치에 대해 “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”라고 설명하며,
 - “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”고 강조하며, “국방부 장관은 군이 12.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이승규	02-2100-2281
	헌법준중 정부혁신 TF	담당자	팀 장 김민수	02-2100-2286